

 관세청 http://www.customs.go.kr		보 도 참 고 자 료		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배포일시	2018. 11. 16.(금)	담당부서	관세청 통관기획과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	
담당과장	이종욱 과장(042-481-7810) 이원희 과장(044-203-4040)	담 당 자	김용익 사무관(042-481-7845) 홍석민 사무관(044-203-4042)	

연간 무역액 역대 최단기간 1조 달러 돌파

－ 역대 최대 연간 무역액(1.1조 달러 이상) 달성 전망 －

1. 무역 1조 달러 달성 동향

□ 관세청.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11월 16일 13시 24분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결과 연간 누계 무역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.

- 금번 실적은 무역통계 작성('56년~) 이래 역대 최단기간 무역액 1조 달러를 돌파한 것이다.
- 이로써 한국은 '15~'16년 무역 1조 달러 클럽을 이탈한 이후, '17년부터 2년 연속 무역 1조불 클럽 재진입에 성공했다.
- 한편, 지난 달 역대 최단기간(최초 10월 중) 수출 5,000억 달러 돌파(10.29일) 이후, 무역액도 최단기간 1조 달러를 달성하는 등 호조세 지속으로 올해 역대 최대 무역액(1.1조 달러 이상) 경신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.

* 역대 무역액(억 달러) : (1위) 10,982('14년), (2위) 10,796('11년), (3위) 10,752('13년)

< 역대 무역 1조 달러 달성 현황 >

구 분	2011	2012	2013	2014	2017	2018
달성 일자	12.5.	12.10.	12.6.	11.28.	12.14.	11.16.
연간 무역액(억 달러)	10,796	10,675	10,752	10,982	10,522	11,000 이상(전망)

2. 주요 특징 및 평가

□ 금년도 한국 무역은 미.중 무역갈등,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, 주요국 제조업 경기 호조세, 국제 유가 상승 등 긍정 요인과 더불어, 수출품목 고부가가치화 및 다변화, 신흥시장 수출 확대 등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선전하고 있다.

* 1~10월 수출액 : 5,053억 달러(+6.4%)로 사상 최대 실적 기록

* 금년도 사상 최초 6개월 연속 및 연간 7번째 500억 달러 이상 수출

- 구체적으로, ①기업들의 적극적인 수출품목 고부가가치화 노력, ②무역보험 확대를 통한 신산업.유망 소비재 등 수출품목 다변화, ③지역별 편중 없는 수출 성장유도 등 다방면의 교역 진작노력에 따라 양적 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진전된 성과를 보였다.

- 특히, ①유망 소비재 지원대상을 중소.중견에서 전 수출기업으로 넓히고*, ②전략적 수출 공략 신흥시장(인도.인니.러시아.브라질.말련.베트남)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** 등 무역보험 지원 확대가 수출 양적 확대 및 수출 시장.품목 다변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.

* 전 수출기업에 한도 최대 1.5→2배 우대, 보험료 할인(중소중견 25%+대기업 10%)

** 기존 한도 일괄 증액(10%) 및 신규 한도 확대(최대 2배) 등

- － 이와 관련하여, 무역보험 지원으로 '18.10월 신흥시장 6개국에 대한 인수실적 +23.6% 증가한 5,677억원, 유망 소비재에 대한 인수실적 +231.3% 증가한 5,383억원에 이르는 등 수출기업의 활용도가 컸다.

< 품목별 >

□ 13대 주력품목* 수출비중이 '17년 대비 하락('17년 78.2% → '18.1~10월 77.7%)하여 13대 주력품목에 대한 집중도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.

* 반도체, 일반기계, 석유화학, 석유제품, 자동차, 철강, 디스플레이, 차부품, 선박, 무선통신기기, 섬유, 컴퓨터, 가전

○ 특히, 1~10월 누계기준, **신산업* 수출증가율**(‘18.1~10월 +12.0%)이 총 수출증가율(+6.4%)을 약 2배 가까이 상회하고 8개 세부품목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,

* 차세대반도체, 차세대DP, 에너지신산업, 바이오헬스, 항공우주, 첨단신소재, 전기차, 로봇
* 신산업 주요품목 수출증감률(‘18.1~10월, %) : (전기차) 80.1, (첨단신소재) 21.8, (바이오헬스) 19.0, (차세대반도체) 11.4, (로봇) 9.9

○ **화장품**(‘18.1~10월 +32.6%).**의약품**(+23.4%) 등 유망 소비재 주요품목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하여 품목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다.

* 유망 소비재 주요품목 수출액(‘18.1~10월, 억 달러) : (화장품) 52.8, (의약품) 30.0

□ 또한, **MCP**(복합구조칩 직접회로).**SSD**(차세대 저장장치) 등 주력품목 내 고부가 품목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(‘18.1~10월 MCP +13.5%, SSD +33.6%)하여 수출품목 고부가가치화가 확대되고 있다.

* 고부가 품목 수출액(‘18.1~10월, 억 달러) : (MCP) 199.5, (SSD) 64.3

□ 한편, **반도체**(‘18.1~10월 +36.2%)를 대표로 **일반기계**(+12.6%).**석유화학**(+15.0%)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등 13대 주력품목도 수출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 하고 있다.

* 주요품목 수출액(‘18.1~10월, 억 달러) : (반도체) 1,072, (일반기계) 444, (석유화학) 422

< 지역별 >

□ 1~10월 누계기준, 10대 주요지역* 중 9개 지역(중동 제외) 수출이 모두 증가하여 지역별 고른 수출 성장세가 시현되고 있다.

* 중국, 아세안, 미국, EU, 베트남, 일본, 중남미, 중동, 인도, CIS

* 주요지역 수출증감률(%) : (중국) 19.6, (일본) 16.3, (CIS) 13.2, (아세안) 4.7

○ 특히, **아세안**(‘18.1~10월, +4.7%).**베트남**(+1.9%).**인도**(+2.5%) 등의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이 경신되어 전체 수출 성장을 견인하였다.

* 주요지역 수출액(‘18.1~10월, 억 달러) : (아세안) 823, (베트남) 400, (인도) 131

□ 또한, **주요 FTA 발효국*의 수출증가율**(‘18.1~10월 10.3%)이 총 수출증가율(6.4%)을 상회하는 등 對 FTA 발효국 수출이 활성화 중이다.

* 주요 FTA 발효국(발효연도) : 우리나라 교역비중 5% 이상 국가(지역)인 중국(‘15), 아세안(‘07), 미국(‘12), EU(‘11), 베트남(‘15)

○ 특히, **주요 FTA 발효국에 대한 1천불 이상 수출 품목수가** 각 지역별 FTA 발효 직전연도 대비 최근 상승 추세임에 따라 품목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고,

* 주요 FTA 발효국 1천불 이상 품목수 현황(발효직전연도→’17년, 개) : (중국) 6,445 → 6,477 (0.5%↑), (아세안) 5,682 → 7,403 (27.8%↑), (미국) 5,125 → 5,754(12.3%↑), (EU) 4,800 → 5,182 (8.0%↑), (베트남) 5,082 → 5,823 (14.6%↑)

○ 아세안.미국 등 주요국 수입시장 내 한국 점유율도 FTA 발효 이후 대체로 상승하는 추세이다.

* 주요 FTA 발효국 수입시장 점유율(발효직전연도 → 가용한 최신통계 기준시점, %) : [아세안] 4.4 → (‘17) 7.9, [미국] 2.6 → (‘18.1~7) 2.9, [중국] 9.7 → (‘18.1~3) 9.8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관세청 김용익 사무관(☎ 042-481-7845), 산업통상자원부 홍석민 사무관(☎ 044-203-404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